

## 인간의 심리를 다룬 스릴러 장르에서의 음악적 연출 Musical direction deals with Human Psychology in Thriller genre

양 선 검, 이승연  
상명대학교 인터미디어 랩

Yang sun-kyum, Seungyon-Seny Lee  
Intermedia Lab at SangMyung Univ.

### 요약

영화에서의 음악의 역할은 중요하다. 영화에서의 내러티브(줄거리)를 전개, 암시해주며,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감성을 유도한다. 영화음악을 작곡하는데 있어서 선율, 박자, 화성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특히 서스펜스, 미스터리 스릴러에서의 긴장감을 위한 영화음악은 특정 악기의 음향적 음색 표현으로 영화를 극대화시키는 연출이 가능하다.

### Abstract

Music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ilms. It develops the narrative of the movie and it emotionally pulls the audience into the film.

In composing film music, you need to put a bigger emphasis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melody, rhythm and harmony. However, to create more tension in the genre of suspense or thrillers, it is possible to maximize the emotion with the acoustic sounds of particular musical instruments.

## I. 서론

1945년 <망각의 여로(Spellbound)>와 <잃어버린 주말(The Lost Weekend)>의 영화음악감독으로 영화음악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미크로스 로자(Miklós Rózsa)는 두 영화의 공통분모인 인간의 심리와 정신에 관한 주제를 테레민(Theremin)이라는 공통된 악기로 큰 역할을 한다. 영화에서 이 악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소리로 인간 심리를 표현하였는데, <망각의 여로>에서는 정신착란 증상을 나타내고, <잃어버린 주말>에서는 알코올 중독을 표현한다. 이 두 영화의 악기 연출 작곡 방법을 통하여 주제묘사와 표현기법 활용을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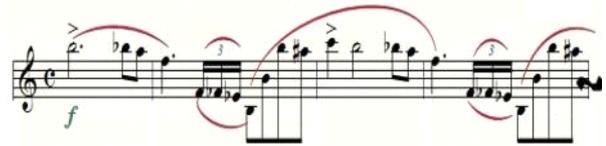
### - 본문 두 영화에서 나타난 테라민

#### 1. 영화 '망각의 여로'

테레민이 나오는 장면은 남자주인공이 하얀색의 선을 볼 때마다 느끼는 불안한 감정과 그에 따른 발작 증세를 보여줄 때 어김없이 연주가 된다. 테레민이 연주될 때의 남자의 상태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다. 남자가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일 때 연주되는 음악 테마는 남자의 정신 착란 테마였으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할 때는 남자의 기억 테마가 연주되었다. 그리고 남자가 자신이 꿈에 대한 환각적인 이야기를 할 때 테라민의 연주는 주요 테마가 아닌, 한 음을 계속 연주하는 지속음이었다.

#### 1) 남자의 정신착란 테마

남자의 정신착란 테마는 남자의 관점으로 남자의 불안한 감정 상태와 정신착란 증상을 보여주며, 이 때 사용된 주요 악기는 테레민이다.



〈악보 1. 남자의 정신착란 테마〉

단 2도 하행 진행으로 불안함을 조장한 후 3도 하행 해결을 해주고 안정된 6도 상행 진행을 하였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단2도 하행이 또다시 불안을 야기한다. 이어서 옥타브 진행을 하여 더욱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단2도 하행과 상승을 반복하여 분위기를 이끌어간다. 남자의 정신착란 테마는 특히 테레민이란 악기가 불안한 분위기를 주도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

#### 2) 남자의 기억 테마

남자 주인공의 화상 입은 손을 여자 주인공이 발견하고 남자는 지나간 기억의 불안을 느끼는 중요한 장면에서 쓰이는 테마이다. 곧바로 정신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어 긍정적인 결말의 희망을 보여주기도 하는 극적 장치 음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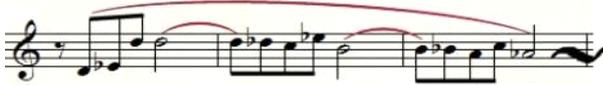
### 〈악보 2. 남자의 기억 테마〉

항상 악기 테레민과 함께 연주되어 고통스러운 남자의 기억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 테마로써 단 2도 하행 진행 후 곧바로 감 5도 상행 진행, 단 3도 하행 해결 진행이 반복되어 들려준다. 남자의 기억 테마는 남자의 관점에서 불안한 감정 상태를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하거나 떠올랐을 때 나온다. 이 영화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전기 신호 음형을 가진 악기 테레민으로 남자주인공의 상태를 표현한 건, 영화음악을 작곡하는데 있어서 악기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2. 영화 '잃어버린 주말'

술에 의지하며 중독 증세를 보이는 주인공 돈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악기로 쓰였다. 주로 중독 테마와 술 테마에 등장하지만, 영화에서 테레민이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환 테마이다. 돈이 술의 중독을 이겨낸다는 것을 음악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

### 1) 남자의 술 테마



### 〈악보 3. 남자의 술 테마〉

술 테마는 주인공 돈의 알코올 중독을 보여주는 사물 테마로써 술이 화면에 등장하거나 돈이 심적으로 술을 생각할 때 항상 등장한다. 술 테마는 항상 테레민이 함께 연주가 되는데, 이것은 주인공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악기이기도 하다. 불안하며 초조해하는 알코올 중독자의 증상과 심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 2) 남자의 중독 테마



### 〈악보 4. 남자의 중독 테마〉

이 영화의 메인 테마이다. 남자 주인공은 알코올 중독자이며, 남자가 주위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음악이다. 주인공 돈이 술에 대한 중독 증세를 나타낼 때 항상 등장한다. Am의 조성으로 현악기군이 옥타브 주법으로 연주한다. 수평적으로 봤을 때, 완전 4도 하행이라는 멜로디 모티브와 선행음(Anticipation)을 이용한 당기는 리듬으로 중독에

대한 표현을 하였으며, 옥타브 유니즌(unison)으로 감정 고조를 시키며 중독에서 헤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표현해 준다.

### 3) 전환 테마



### 〈악보 5. 남자의 전환 테마〉

이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테마인데, 장면이나 내용이 전환될 때 나오는 음악이다. 이것은 음악만으로도 관객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전영화음악의 특징을 잘 보여준 예이기도 하다. 밀집위치(Close Position)로 이루어진 Ab Minor 코드와 Dm 코드의 단 3도 하행 진행의 반복 연주로 뮤트 트럼펫으로 연주된다. 전환 테마는 사건을 암시하거나 예고해주는 역할의 테마로써 장소의 변화뿐만 아니라 극 중 인물의 심적 변화 등 내러티브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용도의 음악이다.

## 3. 결론

영화 '망각의 여로'에서 테레민은 '남자의 정신착란 테마'와 '남자의 기억 테마'를 연주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음을 연주한다. '잃어버린 주말'에서의 테레민은 술 테마와 전환, 중독테마를 연주하였는데, 이것은 내러티브 전개상 남자의 알코올 중독을 예상하게 해주는 복선의 역할로 연주된 것이다. 위의 사실을 토대로 악기 테레민은 두 영화 모두 남자주인공의 심리적 불안감을 표현해주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렇듯 심리를 다룬 스릴러 장르에서의 테레민이란 악기 연출은 적절하였으며 장르에 따른 악기 연출은 영화음악 작곡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참고 문헌 ■

- [1] 한스크리스찬 슈미트 "영화음악의 실제", 영화진흥공사, 1992.
- [2] 한상준 "영화음악의 이해", 한나래, 2000.
- [3] 알렉산더 맥켄드릭, 폴 크로닌 "영화 수업", 북하우스, 2012.
- [4] 질 무엘릭 "영화음악"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 [5] 토마스 엘세서, 말테 하게너 "영화 이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2.